

# '매일 강도 높은 훈련으로 구슬땀 흘려'

## 정음 발리댄스 칼차, 아흘란와 사할란 페스티벌 국제대회서 국악 발리로 2관왕 쾌거

베스트오브코리아 실용예술협회(회장 김소희) 소속 '칼차'가 제20회 아흘란와 사할란 페스티벌 국제대회에서 퓨전그룹 부문과 오리엔탈그룹 부문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편아영, 양아름이(전북과학대), 방가빈(서영여고), 김다연, 김찬아(정음여중), 김나린(정일여중) 6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칼차'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0회 아흘란와 사할란 페스티벌 국제 발리댄스대회에서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특히, 이들 영광의 열풍들은 우리나라 국악 홀로아리랑을 선보여 대회 관계자와 출전자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으며 정음 발리댄스의 명성을 높였다.

'칼차'는 2014년 이집트 대회에서 아리랑으로 1위를 차지하고 2017년 일본 대회에서 홀로아리랑으로 1위, 2019년 다시 한번 이집트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누렸다.

이번 대회에는 발리댄스 종주국인 이집트를 포함하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타이완, 브라질, 우루과이 등 총 25개국 500여 명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출전, 그간 갖고 있던 실력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3월에 처음 구성된 '칼차' 팀은 방과 후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려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간 해마다 각종 국내 무용대회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전국단위 행사에도



베스트오브코리아 실용예술협회 소속 '칼차' (편아영, 양아름이, 방가빈, 김다연, 김찬아, 김나린)가 제20회 아흘란와 사할란 페스티벌 국제대회에서 퓨전그룹 부문과 오리엔탈그룹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초청되어 활발한 공연과 함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역행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소희 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음 발리댄스 발전은 물론 숨은 인재 발굴과 꿈나무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며 "지금 같

은 시기에 함께 출전한 일본을 이길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대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각종 국내외 대회의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있고 주요 무대에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 무주군, 문해교육 감사양성 과정 막 올라

무주군 로컬JOB센터가 주최하고 (사)한국평생교육 HRD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전문 프로그램인 문해교육 감사 양성과정 교육이 오늘부터 약 3개월간의 긴 교육일정에 20여명이 참여하여 학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여자들 중 교사 자격증 소지자부터 다양한 경력을 소지한 분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 문해교육 감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나면 무주군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또한 한 교육생은 전업주부로 사회로부터 경력이 단절되어 있어 이번 문해교육 감사양성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사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무주군 로컬JOB센터에서는 앞으로 문해교육 감사 활용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위한 주무관 간담회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주무관과의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이뤄진 괴롭힘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괴롭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무기 계약직 직원들은 무심코 던진 배려없는 직원들의 언행은 긴 세월 마음의 상처로 남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무슨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로써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아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문감사관은 주무관들에게 근무시 애로사항이 생기면 주무부서장을 통하거나 청문감사관실과 협의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청문감사관실은 24일 조휴억 청문감사관 주재로 아영면사무소에서 각 마을 이장 등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경찰이 버닝썬 사건 등에서 확인된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책인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대토론회'를 추진, 조직 내부의 자정작용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현배 서장은 "청렴환경 조성은 물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가 청렴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청렴을 추구한다면 청렴문화가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경찰서, 의무위반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24일 무주서 4층 강당에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예방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의식 및 문화개선을 위해 박 서장이 직접 주관해 의무위반 예방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및 성비위 등 유사비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근 의무위반 발생 사례를 들어 경각심을 고취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안내하고 신고·처리절차 등 대응방법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알림

▲2019 아름다운 동행 '별밤콘서트' = 일시: 7월 30일(수) 오후 7시, 장소: 풍남문화광장(전주 대건신협 옆),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장에인복지협회 공동

## 남원시, 어린이 위한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 개최

남원시는 24일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 및 학부모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신나는 예술여행 미디어 체험극 '오필리아와 그림자 극장'을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남원원광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공연에서는 풍성한 볼거리와 아동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아름답고 신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가족의 해체와 개인주의로 인한 갈등을 겪는 현대의 사회를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은 배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관객이 직접 무대에 참여하거나 관람 후 직접 그림자 프레임을 이용한 그림자 만들기를 구성해 아동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화재시 안전을 위한 요령 홍보 나서

남원소방서는 여름 휴가철 화재안전을 확보 인명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를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하면 119신고·소화활동·상황과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만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도 있다.

올해 초 천안 차안초에서 증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교사들이 평소 훈련매뉴얼에 따라 대피 유도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평소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미국은 Close before You door(잠들기 전 문 닫아라), 호주는 Get out, Fire about(대피하라, 준비하라) 라는 캠페인이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무리하게 불을 끄려고 애쓰지 말고 불나면 대피 먼저'를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